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 글꼴 분류체계 다양화 연구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Hang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in digital environment

이현주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홍윤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손은미

연세대학교 디자인기획팀

Lee, Hyun-ju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Hong, Yoon-Mi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Sohn, Eun-Mi

Yonsei Design Team, Yonsei Univ.

• Key words: Hang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diversification

1. 서론

컴퓨터의 범용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글꼴을 다루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글꼴 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글꼴의 올바른 보급과 사용을 지원해 주는 글꼴이름체계 및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글 글꼴의 개발 현황조사와 함께 한국글꼴개발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글꼴분류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글꼴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글꼴분류체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및 단체의 글꼴관련 연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동시에 개인의 주관에 의존해 글꼴을 선택, 사용해 온 일반사용자들에게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글꼴 사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글꼴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활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한글글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한글글꼴개발현황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한국글꼴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 당시까지 약 1200여종, 1999년 1년 동안에 약 230여 종의 한글글꼴이 개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 한 해에도 165종의 한글글꼴이 개발되었다고 한다¹⁾. 또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생업체나 개인개발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년 현재는 2000종이 넘는 한글글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한글글꼴 개발회사들이 제시하는 서체 견본집에 따르면 회사별로 글꼴명칭 즉 서체명칭들은 분류체계가 서로 다르고 글꼴 호칭도 서로 다르다²⁾. 따라서 개발사별 개발 서체를 일관된 체계 하에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글꼴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른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된 글꼴의 조형적 중복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로 한국글꼴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글꼴중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는 1211개의 글꼴 이미지들을 모두 수집하여 1차 분류기준은 글꼴의 틀로, 2차 기준은 획의 조형요소인 세리프, 3차 기준은 이미지로 하여 재분류하였으며 분석은 5명의 타이포그래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표1, 2와 같다.

[표 1] 틀과 획의 성격에 따른 글꼴재분류

	네모꼴	탈네모꼴	합
산세리프	448	315	763
세리프	335	113	448
합	783	428	총 1,211개

[표 2] 유사글꼴 재분류

	총갯수	유사글꼴군 갯수	이미지의 상이도
네모/세리프	335	39	12%
네모/산세리프	448	64	14%
탈네모/세리프	113	31	27%
탈네모/산세리프	315	51	16%
	1,211	185	15%

전체 개발된 글꼴의 약 1/3이 네모꼴을 벗어난 서체라는 것은 뒤에서 언급될 기존의 「탈네모꼴체」 분류의 한계점을 나타내며, 전체 글꼴군의 개수에 비하여 글꼴이미지의 상이도가 낮은 것은 실제 글꼴의 다양성이 글꼴의 개수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글꼴개발원에서는 2002년 현재 총 12개 글꼴개발회사의 1436개의 글꼴을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라픽류, 굴림체류, 필사체류, 상징체류, 고전체류, 탈네모꼴체류, 기타체류의 9가지 글꼴분류기준을 통하여 분류, 수록하고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제공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한글글꼴의 분류체계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1. 분류체계 분류기준의 문제점

한국글꼴개발원의 9가지 분류체계는 분류기준 자체가 모양, 용도, 시대 등 여러 가지이고, 분류의 한 기준인 모양 내에도 획의 모양, 틀의 모양, 모양의 의미 등의 기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은 각 분류별로 적용의 우선 순위가 달라 같은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라 하더라도 비일관적이며 모호한 면이 있다.

1) 방병천, 한문희, 2000년도 한글 글꼴 개발 현황, 글꼴 2000, 한국글꼴개발원, 2000

2) 박병천, '98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p.25

[표 3] 글꼴분류체계 분류기준

	분류기준				
	모양			용도	시대
	획모양	틀모양	모양의 의미		
바탕체류	○	○		본문용	
돋움체류	○	○		제목용	
그래픽류	○	○			
굴림체류	○	○			
필사체류			손맛글씨		
상징체류			상징성		
고전체류			상징성		○
탈네모꼴체		○			
기타체류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분류주체별로 자의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체류」라고 하는 모호한 분류체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분류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자신이 원하는 글꼴을 찾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데이터베이스의 손쉽고 다양한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2-2. 탈네모꼴 분류의 문제점

한국글꼴개발원 데이터베이스의 「탈네모꼴체류」에 수록된 글꼴은 239개로 전체 1436개의 글꼴 중 약 17퍼센트로 나타난다. 그러나 네모틀/탈네모틀의 구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해본 앞의 조사 결과, 형태적으로 네모틀에 속하는 글꼴은 783개, 네모틀을 벗어나는 글꼴은 428개로 탈네모꼴글꼴이 실제로는 전체글꼴의 약 35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의 「탈네모꼴체류」라 하는 네모꼴중심의 글꼴분류가 네모틀을 벗어난 다양한 글꼴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명칭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글꼴개발사들은 글꼴명칭을 부여함에 있어서 각 개발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꼴명칭에 근거한 글꼴개발상황의 종합적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를 분류하는 분류체계의 명칭 역시 직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의 분류체계는 한글글꼴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로 분류할 수 없는 글꼴들이 개발되면서 현재와 같이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류기준이 비일관적이다. 따라서 분류체계 명칭도 일관적이지 않다. 글꼴들과 분류체계의 명칭이 직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글꼴의 효과적인 활용은 어려울 것이다.

3. 글꼴분류체계개발의 다양화

현재의 글꼴환경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글글꼴을 다루는 사용자가 많아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 다양한 조형적 특징을 가지는 한글글꼴의 개발이 활발해지며 웹폰트 등 다양한 폰트구현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 한글의 특성, 사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글꼴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유기적인 글꼴데이터베이스를 개

발한다면 질높고 다양한 한글글꼴들의 개발 뿐 아니라 개발되어 있는 한글글꼴들의 활용에 더욱 효과적일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글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앞의 분석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글꼴 분류기준을 제안한다.

3-1. 구조적 분류

구조적 분류는 조합형 글자라는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한글을 구조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네모꼴을 벗어난 글자꼴들도 기준선의 위치에 따라 첫당자 기준선구조, 글꼴중앙 기준선 구조, 모임형식의 변화에 따른 구조변화³⁾ 등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 한글의 구조는 형태적으로뿐 아니라 한글의 기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기계화의 효율성과 기능성, 각종매체에서 가독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글꼴을 개발할 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3-2. 이미지 분류

이미지 분류는 공감각적 정보전달을 위하여 글꼴이 가지는 이미지를 감성이미지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글꼴의 시각적 이미지는 단지 시각적으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이현주(한글폰트의 시각이미지연구 I, 대전전문대학 논문집 제 19호, 1993), 장동훈, 홍은정 (사용자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상의 타이포그래피 사용에 관한 연구, HCI 학회지, 2000.2)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감성을 전달한다. 문자정보의 내용과 글꼴의 시각적 이미지가 동시에 고려될 때 보편성, 이해 속도 등의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3-3. 용도별 분류

용도별 분류는 글꼴의 가독성, 주시성, 감성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글꼴을 매체,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이는 한글 글꼴에 대한 습관적 미감을 극복하고 다양한 글꼴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서체 비전문가들에게는 글꼴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완성도 높고 다양한 글꼴의 개발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글꼴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글글꼴의 특징에 기반한 분류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분류방안으로 세가지 분류기준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각 분류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라 글꼴을 실제로 분류하는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제시된 분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글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 글꼴 수집 및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한글글꼴 개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글꼴의 활용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p.28